

박병호 2G 연속 홈런...오승환 10이닝 무실점

5번 타자겸 1루수 출장 솔로포 포함 2타수 1안타 1타점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2경기 연속 홈런포로 장타력을 과시하며 순조로운 적응력을 보여줬다.

박병호는 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 오토 익스체인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시범경기에 5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해 솔로 홈런 포함 2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시범경기 3안타 중 2개를 홈런으로 기록한 박병호는 타율 0.231(13타수 3안타) 2홈런 6타점, 4득점을 기록하게 됐다. 홈런과 타점은 팀내 선두다.

팀이 1회말 5실점한 뒤 곧바로 이어진 공격에서 박병호는 상대 선발 우완 투수 가빈 플로이드(MLB 통산 72승)를 상대로 2구째를 때려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지난 7일 탬파베이와의 경기에서 시범경기 첫 홈런을 만루포로 장식했던 박병호는 하루 휴식을 취한 뒤 이날 가진 경기에서 2경기 연속 홈런 행진을 펼쳤다.

5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난 박병호는 6회 일렉스 스완과 교체되어 이날 경기를 마쳤다.

이날 미네소타는 팀을 두 개로 나눠 각각 경기를 치르는 스플릿 스쿼드를 펼쳤다. 주전들이 대거 포진한 팀은 오승환이 소속된 세인트루이스와 대결했다.

오승환은 미네소타와의 경기에 선발 마이를 와카에 이어 1-로 뒤진 3회 두 번째 투수로 등판, 10이닝을 깔끔하게 막았다.

첫 타자 커트 스즈키를 포수 앞 땅볼로 잡아낸 오승환은 대니 산타니를 3루수 직선타로 처리했다.

이어 지난해 28홈런으로 팀내 최다를 기록한 브라이언 도지어를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내고 이닝을 마쳤다.

오승환은 4회 루크 위버로 교체되면서 이날 경기를 마쳤다.

지난 6일 미야미전에서 1½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던 오승환은 시범경기 2½이닝 동안 7타자를 상대하며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지 않았다. 삼진 1개를 곁들이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전날 홈런포를 가동했던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는 타석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 선구안과 주루 수비에서 발군의 센스가 돋보였다.

이대호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시범경기 1루수 겸 5번 타자로 선발출장, 2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볼넷으로 4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이어갔다.

특히 미국 진출 당시 저평가의 원인이었던 주루플레이에서도 날렵한 모습을 보였다. 2회초 볼넷을 얻어 출루한 이대호는 손 오말리의 안타 때 3루까지 내달렸다. 이어 마이크 주니노의 희생플라이 때 홈을 파고들어 선취점을 올렸다.

수 차례 안정적인 수비력도 선보였다. 1회말 클리블랜드 호세 라미레스가 우중간을 가르는 타구를 친 뒤 3루까지 내달리다 2루로 귀루하는 과정에서 이대호가 재빨리 2루 베이스 커버에 들어가며 라미레스를 잡아냈다. 2회 무사 2, 3루에서는 1루 강습타구를 잡아 홈으로 송구하며 실점을 막았다. 5회에도 안타성 타구를 몸을 날려 잡은 뒤 1루로 들어온 투수에게 안정적으로 보내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최근 4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던 막내 최지민(25·LA 애인절스)도 침묵을 깨고 시범경기 첫 홈런을 역전 투런포로 장식했다.



박병호는 9일 토론토와 시범경기에서 5번 타자겸 1루수로 선발 출장해서 솔로 홈런 포함 2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최지민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시범경기 1루수 겸 9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홈런 포함 3타수 1안타 2타점 1볼넷을 기록했다. 최지민은 시범경기 타율 0.235(17타수 4안타) 1홈런 5타점을 기록

중이다.

전날 멀티 안타를 때렸던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도 오글랜드 어슬레틱스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김민근기자

군산새만금배 배드민턴대회 12·13일 개최

2016 제11회 군산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군산새만금배드민턴장에서 열린다.

군산배드민턴연합회(회장 김동희)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600여 개 팀 1200여명의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출전한다.

대회 종목은 남녀 혼합복식 A, B, C, D급별 대항전으로 펼쳐지며, 참가 선수들이 지난 겨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채형석 체육진흥과장은 "배드민턴은 동호인의 친목과 화합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증진도모와 지역발전의 융합을 이끌어 내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속적인 대회 유치활동과 스포츠관광산업 대응전략으로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이운재 대표팀 코치 슈틸리케호 코칭스태프 합류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이운재(48)씨(사진) 현 올림픽대표팀 골키퍼 코치가 슈틸리케호 코칭스태프로 합류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일 열린 기술위원회(위원장 이용수)에서 지난해 12월 사퇴한 김봉수 골키퍼 코치의 후임으로 이 코치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기술위원회는 "슈틸리케 감독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기술위원회도 올림픽대표팀에서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운재 코치가 2018년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과 본선을 앞둔 대표팀의 골키퍼 코치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다만 오는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본선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술위원회는 이 코치를 올림픽 종료 이후 국가대표팀을 맡기로 했다.

청주상고, 경희대를 졸업하고 수원삼성과 전남 드래곤즈에서 활약한 이 코치는 총 133번의 A매치에 출전한 한국 축구 최고의 골키퍼다.



/김민근기자

K리그, 킥오프전 선발 명단 교체 가능해진다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도 경기 직전 출전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기존에는 교체 카드를 사용해 선수를 바꿔야 했으나 이제는 교체 카드 사용 없이 선수를 교체할 수 있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대회요강 중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수 교체 규정 변경이다.

베스트 11 확정된 이후라도 킥오프 전까지 경기감독관의 승인을 받으면 교체 대상선수 7명에 한해 교체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선발 명단이 확정된 이후엔 부상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교체를 결정할 수 없었다. 본 경기에서 활용할 교체카드가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다만 교체된 선수는 후보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경기에 나설 수는 없다.

승점 통틀기 순위 결정 방식도 변경됐다. 순위 경쟁을 벌이는 두 팀간 승점이 같을 때, 누가 골을 많이 넣었느냐가 중요해졌다. 골득실 원칙보다 다득점이 우선이다. '승점, 다득점, 골득실, 다승, 승자승, 벌점, 추첨' 순이다.

해당 규정은 K리그 챌린지(2부 리그)와 R리그(2군 리그)에도 적용된다. 올 K리그 클래식은 오는 12일 전북 현대와 FC서울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김민근기자

넥센 홈구장 고척스카이돔 입성...선수들 만족 분위기

뛰는 야구하는 팀 큰 구장은 득... '육상부 야구 전환선언'

넥센은 지난 6, 7일 새 홈구장인 고척스카이돔에 입성해 자체훈련을 했다. 전지훈련 후 새 집 첫 방문이었다.

8일 자리를 옮겨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시범경기 개막을 맞았지만 화두는 단연 고척돔이었다.

염경엽 넥센 감독은 "목동구장보다 야구하기에 좋은 것 같다. 생각보다 야구장이 커서 좋다"면서 "선수 편의시설도 좋고 휴식공간도 있다. 100%는 아니겠지만 선수들은 만족하는 분위기다"고 평했다.

넥센은 2008년부터 목동구장을 사용하던

서 구장 시설과 편의공간 정비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러나 고척돔 완공 시기에 맞춰 서울시는 목동구장을 다시 야마추어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넥센은 '반 쪽짜리 돔'이라는 오명을 쓴 고척돔으로 더 비싼 사용료를 내면서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다.

염 감독은 "마침 타이밍이 좋았다. 지난해 같았으면 구장이 커지는 것이 팀에 손해였을 것이다"고 말했다.

고척돔은 홈플레이트에서 펜스까지의 거

리가 좌우 99m, 중앙 122m다. 펜스 높이는 4m다. 목동에 비해 좌우 1m, 중앙 4m, 펜스 높이 2m가 늘었다.

지난해 넥센은 홈런 208개를 때리며 역대 5번째 200홈런 이상 기록한 팀이 됐다. 작은 목동구장이 넥센의 팀 컬러와 맞아 떨어진 결과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시즌 최초 2년 연속 50홈런 이상을 친 박병호(미네소타)가 메이저리그로 떠났다. 홈런 23개를 친 중장거리 타자 유한준도 자유계약선수로 kt 위즈로 이적했다.

넥센은 돌연 '거포 군단'에서 육상부 야구로 전환을 선언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 염 감독은 "지금 당장 우

리가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한 베이스 더 진투하는 기술을 갈고 닦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뛰는 야구하는 팀에 큰 구장은 득이 된다. 2루타성 타구가 3루타가 된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던 넥센 마운드에도 좋은 일이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열악한 주변 시설이다. 고척돔은 주차장과 접근성, 비좁은 관중석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넥센은 어느 때보다 비싼 3월을 보낼 예정이다. 개막 이전까지 '뛰는 야구'도 정착시켜야 하고, 새 구장에도 적응해야 한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